국내의 이주민 선교 연구

A Study on Migrant Mission in Korea

이 복 수

고신대학교 명예교수 · 성지학원 이사

목 차

I. 들어가면서 | 27

II. 이주민에 대한 이해 |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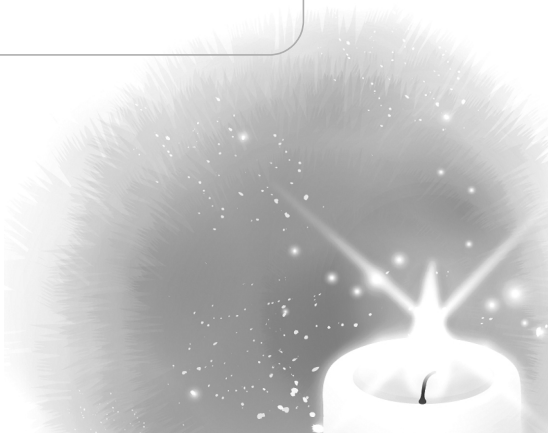
III. 이주민의 제 유형과 증가의 현황 | 32

IV. 이주민 선교에 대한 성경적 · 선교학적인 이해 | 43

V. 선교 대상으로서 이주민의 현실 이해 | 58

VI. 이주민 선교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 | 66

VII. 결론 | 82



요약

국내의 이주민 선교 연구

국내의 이주민 선교는 한국교회가 새롭게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여기에는 특별히 몇 가지의 중요한 한 이유가 있다. 먼저는 현재 합법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이 120여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불법으로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합한다면 더욱 많은 수에 이른다. 국내의 이주민들은 유학, 결혼,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노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먼저 수자 면에서 한국교회가 그들을 위한 선교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의미를 가진다. 다음은 이주민의 선교는 한국의 해외선교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해결하는데 좋은 전략이다. 해외선교 현지에 나가는 선교사는 항상 현지의 문화와 언어의 장벽 앞에서 사역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주민의 선교는 역방향에서 이주민 자신이 한계를 가지는 상황에서의 사역을 펼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서 이주민이 복음을 받고 본국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문화와 언어로 자국민에게

선교사역을 수행하는 최상의 사역을 펼칠 수 있는 것이다. 셋째는 이주민 선교가 고비용의 선교를 저비용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략이다.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는 항상 고비용이 소요되지만 국내 이주민을 위한 사역은 다소 저비용을 통한 높은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한국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상황이 아니면 선교에 저비용의 효율성을 당연히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넷째는 현대 선교의 개념이 복음전파를 중심으로 섬김의 사역을 포괄하는 이해를 가짐으로 이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섬기는 사역을 통하여 포괄적인 선교의 수행에 가장 어울린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이주민 선교의 중요성을 토대로 본 연구는 국내의 이주민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파악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펼칠 수 있는 사역들을 고찰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A Study on Migrant Mission in Korea

주요어

이주민, 이주민 선교, 구심적 선교, 원심적 선교, 선교의 포괄적 개념

Abstract

A Study on Immigrant Mission in Korea

Prof. Dr. Bok-Soo Lee

Immigrant missionary work is widely undertaken in front of Korean churches. There are several reasons for it to be understood. First of all, there are 1,139,283 lawful immigrants in Korea at the present end of 2010 and many others who are illegal immigrants from many countries. The total immigrants are at lowest about 1 million and several hundred thousands. The primary factors of their living in Korea are various including work, study, marriage, and so on. These immigrants are enough for korean churches to attend mission for them even in a numerical dimension. Second, missionary work of Korean churches can be attended to without the many difficulties which originate from other cultures and languages. Third, it is possible for Korean churches to attend missionary work at an inexpensive cost rather than the expenses of sending missionaries to other countries. Fourth, immigrant mission is also within the concept of contemporary missiology which teaches comprehensive factors including evangelism and serving those who are in difficulties. In the next step, this study deals with some various difficulties in the daily lives of immigrants. It is useful to take a detailed

look for ways in which churches may serve them. Finally, this study makes a list of missionary works which korean churches can attend to for migrants.

Keywords | Migrant, Migrant mission, Centripetal mission, Centrifugal mission, Comprehensive concept of mission

I. 들어가면서

한국교회의 해외선교에 새로운 과제가 시작되었다. 교회가 해외선교의 현장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계속해야 하지만 국내에서도 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사역을 펼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내의 이주민 선교는 사역에 있어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해결하면서 고비용의 해외선교를 저비용으로 전환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서 국내의 이주자들 가운데 복음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에도 역시 문화와 언어에 장애를 해결하는 사역자로 역할하게 되는 역 파송의 선교사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미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에서 많은 이주자들이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주자를 위한 선교사역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국내 이주자 선교의 선교신학적인 의미를 확립하고 나아가서 성격적인 실례들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하는 작업이 아닐 수 없다. 특별히 이러한 작업은 해외에서의 사역만을 선교로 이해하려는 입장들과 선교를 복음전도의 차원에서만 이해하는 경향의 잘못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교회와 성도들이 국내의 이주자를 위한 사역이 선교사역 자체임을 명확하게 인식토록 하는 것을 의도한다.

다음으로 국내의 이주자들에 대한 현황과 이주의 형태들을 고찰하면서 동시에 이주자들의 삶에 있는 어려움들을 밝힌다. 이주자들의 삶에 있는

고충들은 그들이 더욱 무엇인가에 의존하려는 심리의 사람들임을 발견하면서 복음이 필요한 토대를 밝히며 또한 그들의 고충을 돕는 사역 자체가 선교사역에 해당하는 것임을 선교학적으로 정립해 본다. 이어서 한국교회가 전체적인 협력의 토대에서와 개 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역의 방안들을 제안한다. 이러한 방향에서 진행되는 본 연구가 한국교회의 이주민 선교에 더욱 큰 자극제가 되기를 소망한다.

Ⅱ. 이주민에 대한 이해

1. 성경적인 이해

성경이 말하는 이주민은 구약과 신약의 두 배경에서 살피는 일이 필요하다. 구약에 나타나는 외국인을 의미하는 용어는 노크리(Nokri), 게르(Ger), 자르(Zar), 토삽(Tosab)이다. 이 4용어는 거주의 기간으로 구분하면 노크리와 자르는 단기 체류자를 의미하고 게르와 토샤브는 장기 체류자를 의미한다. 노크리는 이스라엘에 정착하여 동화하려는 의향이 없이 잠시 거주하는 상인들과 같은 사람들로서 표현되었다(느 13:15-17). 자르는 상업이나 여행의 목적 혹은 용병의 신분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한 자들을 지칭했으나 후대에 이르러 다소 확대된 의미로서 “이방인, 외국인”으로 표현되었다(사 1:7; 렘 5:19, 51:51; 겔 7:21, 28:7; 욥 1:11). 게르는 “나그네, 객, 우거하는 자” 혹은 “이방인”(렘 22:2), “타국인 혹은 외인”(민 19:10)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 되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에서 출애굽 시에는 함께 나온 잡족들, 가나안에 거주 시에는 이스라엘과 함께 거주하게 된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외국에서 피난 온 사람들을 의미하였다. 포로 후기에 이르러서는 개종자 곧 귀화한 이방인을

지칭하기도 했다(대상 29:15). 토사브 역시 게르와 유사한 동의어로 사용되어 "거류자, 우거하는 자"(대상 29:15)로 번역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완전한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 얹혀사는 나그네를 가리킨 것이다.[1] 이러한 구약의 용어들에 나타난 것을 보면 서로가 명확하게 구별된 의미로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이 아니면서 여러 형태로 단기 혹은 장기로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에 거주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신약의 표현은 구약과 차이가 있다. 신약은 유대인들의 거주지나 혹은 예수님의 복음전파 사역의 현장,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사역을 한 지역들에서 만나는 이방인들에 대한 기록들은 있지만 반드시 그들을 이주민 혹은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찾는 일은 쉽지 않다. 이러한 차이는 구약의 선교와 신약의 선교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차이와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구약의 선교가 구심적이라면 신약은 원심적인 원리에서 볼 때 구약은 외인들이 이스라엘의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고 신약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방으로 나가는 경향이 일반적이었다는 사실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약은 오히려 외인이나 이방인을 나그네로 표현하기 보다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천국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더욱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승구는 신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주체로서의 이주자"로 표현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다.

>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지상 가운데 잠시 거주하는 것이고, 이 땅은 그들의 고향(homeland)이 아니고 그들이 그 안에 잠시 머무는 낯선 이방 땅이기에 신약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나그네,

1) 김의원, "구속사에서 본 외국이주민", 박찬식・정노화 편, 21C 신유목민 시대와 이주자 선교(서울:(사)기독교산업사회연구소, 2008)), 64-67.

> 즉 이 땅의 이주자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영원히 거주하지 않는 '순례자들'(pilgrims)이요, '이주자'(migrants)이라는 것을 지시하면서 성경 곳곳에 그리스도인을 향해 나그네(παρεπίδημοι)이라는 말이 사용되는 것이다.2)

그는 계속하여 신약성경이 말하는 나그네 사상은 우리들이 정착민으로 살고 있는데 다른 이들이 우리들 가운데 와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용어의 사용이 아닐 수 없는 것으로 주장한다.3) 그러나 드물게나마 유대인을 중심으로 이방인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막 7:27)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마10:5-6)는 말씀들에서 발견된다. 이런 말씀의 의미는 이방인을 무시하고 멸시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우선순위와 효율성에 있어서 '먼저 유대인이고 후에 이방인에게'"라는 도식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4)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은 첫 오순절에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15개의 외지에서 잠시나마 예루살렘에 모여왔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문화의 특성을 가진 교회로 출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5) 이스라엘이 주체가 아닌 객체로서 이방에 나그네가 되었던 내용들을 흩어진 유대인들의 개념으로서 Diaspora를 들 수 있으나 본 논문의 성격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 이주하여 나가서 나그네이기보다는 이주해 온 나그네들에 대한 선교적인 연구이기 때문이다.

---

2) 이승구, "이주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 박찬식・정노화 편, 21C 신유목민 시대와 이주자 선교(서울:(사)기독교산업사회연구소, 2008), 125-126.
3) Ibid, 126.
4) 박성범, "다문화 가정의 신앙 정착을 위한 교회교육의 접근방법 고찰". 개혁논총, 제15권(2010년 9월), 137.
5) Ibid.

이상과 같은 성경적인 고찰에 의하면 오늘의 국제관계와 새로운 산업사회의 형성아래서 나타나는 이주자와 신 · 구약 성경에 표현된 이주자가 반드시 동일한 형태이기 보다는 다소 차이가 있는 유형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전체적으로 나그네를 선대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출 10:18-19). "형제들아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히13:1-2).

2. 현행 사회학적인 이해

국제정세의 변화와 산업에 있어서 국제적인 현상, 그리고 교통수단의 발달은 사람들을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것을 더욱 쉽게 만들었다. 지난날 이데올로기 차이로 인한 냉전체제에서의 적성국도 이제는 서로 교류를 하게 되었고 산업현장이 타국의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상황은 다양한 이주자들이 증가시켰다. 편리한 교통수단 역시 이 일을 가속화하는데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주민이란 용어가 보편화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들어온 이주민을 만나는 일은 도시에서 뿐만 아니라 시골에서도 흔한 일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외국의 인력을 받아드리면서 초기에는 "산업연수생"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2004년부터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도입으로 공식적인 근로자의 입국이 이루어지면서 "외국인 근로자(Foreign worker)"로 혹은 "외국인 노동자" 중에 어느 용어를 사용할 것인가를 논란하는 가운데 외국인이란 용어가 차별성을 지닌다는 이유에서 UN과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사용하

는 용어로서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를 사용하게 된 것이 더욱 최근의 상황이다. 그러나 다시 이주노동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문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되면서 “이주민”으로 호칭되는 것이 더욱 일반화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6] 따라서 현재 우리의 사회에서 일반화 되어 있는 의미는 이주민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이주민의 제 유형과 증가의 현황

국제관계의 변화와 새로운 산업사회의 형성, 그리고 가족관계의 변화는 이주민의 형태를 더욱 다양화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게 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주민들에 대한 여러 유형과 시간이 지나면서 이주민들이 더욱 증가해 가는 현황을 밝힌다.

1) 귀화로 인한 이주민

귀화로 인한 이주민은 사실상 동기에 있어서는 이주민의 다양한 형태들과 독립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이주의 다양한 형태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지내다가 귀화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편의상으로 이주민의 한 형태로 고려하여 분류한다.

법무부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귀화한 사람의 수가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6) 정노화, “한국사회의 다문화 사회진행과 선교”, 박찬식 · 이우성 편, 한국교회여, 미래사회를 대비하라(서울:(사)기독교산업사회연구소, 2006), 217-219.

정부수립 후 63년 만에 10만 명이 넘어선 것으로 2011년 1월24일에 발표한바 있다. 이는 1957년에 대만 국적을 갖고 있던 손일승씨가 제1호 귀화자이며 10만 번째는 한국에서 31년간 살다가 정부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한국인'이 된 알록 쿠마르 씨이다. 그는 인도 네루 출신으로 한국어를 전공한 뒤 1980년 한국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입국하여 한국인 아내를 맞아 두 딸과 함께 살고 있으며 현재 부산외국어대학교 인도어과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실제 국내 귀화자는 2000년까지만 해도 연평균 34명에 불과했지만 2001년부터 작년까지는 연평균 9816명에 달할 정도로 급증하는 현상인데 당사자들의 원래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전체의 79%(7만9163명)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어서 베트남 9%(9207명), 필리핀 5%(5233명), 대만 2%(2093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7] 다음의 표에 의하면 지난 2007년에서 2010년까지 최근 경향으로서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의 통계를 볼 수 있다.

* (표 1) 최근 4년 동안의 한국국적을 취득한 현황[8]

(단위 : 명)

2007	2008	2009	2010
54,051	65,511	73,725	96,461

7) http/blog.naver.com/rozg/140122580575. (참고로 국적법 제7조의 특별귀화 요건은 다음과 같다 :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는 제외한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3.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통계청 자료(통계청 자료로서는 가장 최근의 자료로서 2012년 6월 27일 인용)

귀화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여러 가지의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것은 우리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귀화자의 수도 증가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2) 근로자 이주민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의 노동력을 외국에 송출하는 나라로서 주로 미국, 독일, 일본, 중동 등으로 노동자를 내 보내는 상황이었다.[9] 그러나 1980년 중반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제조업, 건설업, 광업의 생산직 인력난이 발생하게 되면서 외국인들의 한국 취업을 위한 길들이 열렸다. 당시에 외국인 노동자를 유입하게 된 국내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은 4가지로 설명된다. 첫째는 88서울 올림픽으로 인하여 제3세계 사람들에게 6.25이후의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국가로 성장한 것이 알려지게 되었던 것과 관계가 있었다, 둘째는 90년을 기점으로 중국과 한국의 문호가 개방되면서 중국에 있는 교포들이 한국방문을 하게 되는 것과 관계가 있었다. 세 번째는 국내의 외곡 된 산업구조로 인하여 3D업종의 인력난과 관련이 있었다. 네 번째는 정부의 출입국 관리의 정책이 엄격하지 않고 문을 대폭 개방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었다.[10] 국내의 3D(Difficulty, Dirty, Danger)업종에 특별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필요하게 된 요인들 중에는 고등하교 졸업생 80%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면서 그러한 업종을 기피하는 경향과도 관계가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

---

9) 이만열, “한국교회의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선교적 과제”, 특수선교와 교회성장(서울 : 대한예수교장로회 특수선교위원회, 1997), 68.
10) Ibid, 68-69.

이러한 출발에서 초기 이주노동자들의 유입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 불법체류자들의 문제가 부각되었다. 따라서 1990년 초까지는 출입국 관리법에 의거하여 합법적으로 입국한 취업자들은 극소수의 전문기술직 종사자들이었다. 1989년부터 국내의 산업현장에 생산직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합법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외에도 소위 "불법체류 취업자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합법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정부는 1991년부터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를 실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1993년 이 제도를 잠시 중단한 적이 있으나 다시 재개하였음). 이러한 결과로 국내에는 "합법취업자"와 "산업기술 연수생", 그리고 "불법체류 취업자"의 세 가지 유형의 이주노동자가 존재하면서 그 수를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다.[11] 증가의 추세를 초기 10년 동안과 현재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표 2) 초기 10년간의 체류자격별 외국인 노동자 현황[12]

(단위 : 명, %)

연도	총계	합법취업자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산업연수생	미등록체류자
1994.12	81,824(100.0)	5,265(6.4)	9,512(11.6)	18,816(23.0)	48,231(58.9)
1995.12	128,906(100.0)	8,228(6.4)	15,238(11.8)	23,574(18.3)	81,866(63.5)
1996.12	210,494(100.0)	13,420(6.6)	29,724(14.1)	38,296(18.2)	129,054(61.3)
1997.12	245,399(100.0)	15,900(6.5)	32,656(13.3)	48,795(19.9)	148,048(60.3)
1998.12	157,689(100.0)	11,143(7.1)	15,936(10.1)	31,073(19.7)	99,537(63.1)
1999.12	217,384(100.0)	12,592(5.8)	20,017(9.2)	49,437(22.7)	135,338(62.3)
2000.12	285,506(100.0)	19,063(6.7)	18,504(6.5)	58,944(20.6)	188,995(66.2)
2001.12	329,555(100.0)	27.614(8.4)	13,505(4.1)	33,230(10.1)	255,206(77.4)
2002.12	362,597(100.0)	33,697(9.2)	14,035(3.9)	25,626(7.1)	289,239(79.8)
2003.12	367,158(100.0)	33,030(9.0)	13,744(3.7)	32,576(8.9)	287,808(78.4)

11) 경기개발연구원, 외국인근로자 정주실태 및 정책수요조사(수원 : 경기개발연구원, 2006), 9.

12) 정귀순, "한국 이주노동자의 인권 실태", 이주 노동자 선교방안(2004년 9월 14일 고신대학교 선교연구소 정기 세미나 강의안), 2.

(표 2)에 나타난 초기 10년 동안의 통계에 의하면 미등록체류자(불법체류 노동자)가 합법적인 절차를 밟고 들어온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았으며, 그리고 계속하여 이주노동자는 증가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 최근 수년 동안 증가의 경향은 다음의 표를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다.

* (표 3) 최근 4년간의 외국인 근로자 현황[13)]

(단위 : 명)

2007	2008	2009	2010
259,805	437,727	575,657	558,538

(표 3)에 의하면 2008년과 2009년에 급증한 것을 볼 수 있으며, 2010년에는 558,538명으로 다소 주춤한 현상을 보인다. 여기 주춤한 현상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초기 10년 동안의 현황과 비교해 볼 때 합법적인 취업자의 경우에는 상당히 증가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어서 2010년의 경우 불법체류자와 합법체류자를 구별한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표 4) 취업 자격별 외국인 현황[14)]

(2010년 3월 31일 현재, 단위 : 명)

구분		총계	전문인력	단순기능인력
총 체류자		560,708	42,475	517,963
합법 체류		506,387	40,129	465,258
불법 체류	(16-60세)	52,370	2,575	49,804
	(전 체)	55,321	2,616	52,705

13) 통계청 자료(통계청 자료로서는 가장 최근의 자료로서 2012년 6월 27일 인용)

14) 임희모, “지구화와 다문화 상황에서 한국교회의 선교적 과제”, 문화와 사회변동, 1910년 에딘베러 세계선교사대회 100주년 기념 2010 한국대회 논문집, 제8분과(서울 : 한국연합선교회, 2011), 41.

(표 3)과 (표 4)에 의하면 이주노동자로서 한국에 체류하는 전체의 수에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2,1780명) 이것은 동일한 년도 일지라도 월별 현상의 차이(표 3은 당해 연도의 연말, 표 4는 3월)로 이해할 수 있다. 역시 (표 3)에 의하면 2010년 3월 31일 현재로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 외국인 노동자 전체는 560,708명으로서 그중에 합법체류자는 505,387명이고 불법체류는 55,321명으로서 초기의 10여 년간에 나타난 불법체류자의 수 보다는 현저한 감소의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엄격한 통제를 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결혼 이주자

국내의 이주자를 증가시키는 다른 한 요인은 국제결혼 혹은 이중 문화가정이다. 특별히 국제결혼의 가족에 의하여 '다문화가정'이 형성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먼저 1990년에서 2004년까지의 국제결혼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표 5) 1990년-2004년까지의 국제결혼 건수와 비율[15)]

(단위 : 건, %)

연도	총 결혼건수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	
		건수	%	건수	%	건수	%
1990	399,312	4,710	1.2	619	0.2	4,091	1.0
1991	416,827	5,012	1.2	663	0,2	4,349	1.0
1992	419,774	5,534	1.3	2,057	0.5	3,477	0.8
1993	402,593	6,545	1.6	3,109	0.8	3,436	0.9
1994	393,121	6,616	1.7	3,072	0.8	3,544	0.9

15) 박찬식, "21C 선교환경 변화와 이주자 선교의 관점과 전략", 박찬식 · 정노화 편집, 21C 신유목민 시대와 이주자 선교(서울 : (사)기독교산업사회연구소, 2008), 35.

연도	총 결혼건수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	
		건수	%	건수	%	건수	%
1995	398,484	13,494	3.4	10,365	2.6	3,129	0.8
1996	434,911	15,946	3.7	12,647	2.9	3,299	0.8
1997	388,591	12,448	3.2	9,266	2.4	3,182	0.8
1998	375,616	12,188	3.2	8,054	2.1	4,134	1.1
1999	362,673	10,570	2.9	5,775	1.6	4,795	1.3
2000	334,030	12,319	3.7	7,304	2.2	5,015	1.5
2001	320,063	15,234	4.8	10,006	3.1	5,228	1.6
2002	306,573	15,913	5.2	11,017	3.6	4,896	1.6
2003	304,932	25,658	8.4	19,214	6.3	6,444	2.1
2004	310,944	35,447	1.4	25,594	8.2	9,853	3.2

(표 5)에 의하면 국제결혼은 1990년 초기 2년 동안에 한국인 여인이 외국인 남편과 결혼 경우가 앞섰으나 1992년부터는 한국인 남편이 외국인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 경우가 더욱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도 1990년에 국제결혼은 4,710건이었으나 2004년에는 35,447건으로 증가된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최근 4년간의 변화상황과 국적별 통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 (표 6) 2007년-2010년간의 국적별 국제결혼 이주자 현황[16)]

(단위 ; 명)

지역별	국적별	2007	2008	2009	2010
전체합계		**87,964**	**102,713**	**125,673**	**125,087**
동북아	**소 계**	59,756	66,339	76,553	73,683
	중국	17,933	22,683	33,457	33,426
	한국계중국	29,739	32,466	35,386	32,566
	대만	4,651	3,341	351	325
	일본	5,998	5,994	5,050	5,074
	몽골	1,435	1,855	2,309	2,292

16) 통계청 자료(통계청 자료로서는 가장 최근의 자료로서 2012년 6월 27일 인용)

지역별	국적별	2007	2008	2009	2010
동남아	**소 계**	21,627	28,966	40,380	42,422
	베트남	14,856	19,660	28,817	30,173
	필리핀	4,077	4,716	6,117	6,321
	태국	1,353	1,644	2,092	2,029
	인도네시아	393	415	402	397
	캄보디아	-	-	-	3,230
	미얀마	-	-	-	78
	말레시아	-	-	-	49
	홍콩	-	-	-	71
	기타(2)	948	2,531	2,952	74
남부아시아	**소 계**	1,064	1,343	1.762	1,895
	스리랑카	-	-	-	117
	파키스탄	-	-	-	642
	네팔	-	-	-	590
	방글라데시	-	-	-	417
	인도	-	-	-	116
	기타	-	-	-	13
중앙아시아	**소 계**	1,320	1,421	1,909	1,865
	우즈베키스탄	-	-	-	1,437
	카자흐스탄	-	-	-	147
	키르기스스탄	-	-	-	253
	기타	-	-	-	28
미국		1,211	1,354	1,575	1,638
러시아		870	836	947	855
한국계러시아		-	-	-	73
나이지리아		-	-	-	64
남아공화국		-	-	-	33
뉴질랜드		-	-	-	145
독일		-	-	-	108
영국		-	-	-	344
오스트레일리아		-	-	-	230
캐나다		-	-	-	839
프랑스		-	-	-	137
기타		2,116	2,454	2,548	756

(표 6)에 의하면 2007년 이후에도 국제결혼의 견수는 증가해 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2010년 현재 125,087명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특별히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의 사람들과의 결혼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그러한 지역들의 여성들이 한국의 남성들과 결혼하는 경향이 늘어나는 것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4) 외국인 유학생 이주자

지난날은 주로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서구에 유학을 갔으나 지금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유학을 오는 양방향의 경향이다. 따라서 외국의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동안은 이주자로 지내게 된다. 우리나라에 유학생으로 오는 경우는 IT분야, 다자인 그리고 신학분야의 공부를 위해서 오는 학생들이 많다. 또한 최근에는 한류 열풍과 함께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유학생들도 증가하고 있다.[17] 최근 3년간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표 7) 2008년-2010년간의 유학생 현황[18]

(단위 : 명)

지역별	국적별	2008	2009	2010
전체 합계		**56,279**	**77,322**	**80,646**
동북아	**소 계**	45,998	65,577	68,750
	중국	37,815	56,433	59,587
	한국계중국	4,287	3,849	3,510
	대만	540	348	355
	일본	1,586	1,819	1,625
	몽골	1,770	3,128	3,673

17) 조귀삼, "재한 디아스포라 거류민의 신음에 대한 교회의 선교적 응답", 복음과 선교, 제9권(2008년 6월), 56.

18) 통계청 자료(통계청 자료로서는 가장 최근의 자료로서 2012년 6월 27일 인용)

지역별	국적별	2008	2009	2010
동북아	소 계	4,356	4,918	4,921
	베트남	2,598	2,850	2,815
	필리핀	512	373	395
	태국	176	258	227
	인도네시아	357	401	391
	캄보디아	-	-	125
	미얀마	-	-	194
	말레시아	-	-	551
	홍콩	-	-	90
	기타	713	1,036	138
남부아시아	소 계	1,606	1,902	1,994
	스리랑카	-	-	77
	파키스탄	-	-	343
	네팔	-	-	408
	방글라데시	-	-	515
	인도	-	-	635
	기타	-	-	16
중앙아시아	소 계	639	1,162	1,046
	우즈베키스탄	-	-	719
	카자흐스탄	-	-	172
	카르기스스탄	-	-	93
	기타	-	-	62
미국		1,434	1,080	972
러시아		337	431	437
한국계러시아		-	-	16
나이지리아		-	-	47
남아공화국		-	-	5
뉴질랜드		-	-	5
독일		-	-	206
영국		-	-	53
오스트레일리아		-	-	48
캐나다		-	-	76
프랑스		-	-	236
기타		1,909	2,252	1,834

유학생 이주자 역시 꾸준한 증가의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2008년 56,279명에서 2010년 80,646으로 늘어났다. 여기에다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 이주 아동들이 있는 것으로 많게는 20,000명 적게는 11,000정도로 추산한다.[19] 우리나라가 경제성장과 IT분야에서 앞서가며, 계속적인 한류의 열풍이 일어난다면 외국의 유학생들도 계속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한다.

지금까지 국내의 이주민들에 해당하는 주요한 4부류의 현황들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 외에도 여러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는 최종적으로 이미 위에서 파악된 내용을 토대로 기타의 몇 가지 요인들을 추가하여 현재 국내에 이주해 있는 외국인 이주민들의 전체적 통계를 밝힌다.

* (표 8) 외국인 주민의 전체적인 현황[20]

(단위 : 명)

구분		2007	2008	2009	2010
주민전체등록인구		49,092,419	49,355,153	49,593,665	49,773,145
외국인주민	총계	722,686	891,341	1,106,884	1,139,283
	남	394,720	482,870	584,697	586,481
	여	327,966	408,471	522,187	552,802
한국국적을가지지않은자		-	-	925,470	920,887
외국인근로자		259,805	437,727	575,657	558,538
국제결혼이주자		87,964	102,713	-	-
결혼이민자		-	-	125,673	125,087
유학생		-	56,279	77,322	80,646
재외동포		-	-	43,703	50,251
기타외국인		276,608	171,104	103,115	106,365
한국국적을취득한자		-	-	73,725	96,461
혼인귀화자		38,991	41,672	41,417	56,584
기타사유로국적취득자		15,060	23,839	32,308	39,877

19) 임희모, “지구화와 다문화 상황에서 한국교회의 선교적 과제”, 42.
20) 통계청 자료(통계청 자료로서는 가장 최근의 자료로서 2012년 6월 27일 인용)

구분	2007	2008	2009	2010
국제결혼가정자녀	44,248	58,007	-	-
외국인주민자녀	-	-	107,689	121,935
외국인부모	-	-	4,205	6,971
외국인-한국인부모	-	-	88,485	98,531
한국인부모	-	-	14,999	16,433
외국인주민세대수	-	-	186,566	217,094

(표 8)에 의하면 1010년의 연말을 기준으로 국내에 이주하여 머물고 있는 외국인 전체는 1,139,283명에 이른다. 여기에는 불법 체류자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그들 까지 포함된다면 더욱 늘어나는 것이 분명하다.

심지어 2020년에는 700-800만 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는데, 이 가운데 이주노동자들이 3-10%에 도달할 것으로 보는 UN의 예측 선에서 5%만 적용한다고 해도 200만 명에 이른다. 또한 매년 35,000명 정도가 국제결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조금 증가하는 것으로 40,000명씩 늘어나는 것으로 보아도 600,000명에 이를 것이며, 이를 다문화 가정으로서 3배수를 하면 1,800,000명 정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21] 이처럼 이주민들의 국내 유입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그들을 위한 선교를 수행하는 일은 우선적으로 대상에 있어서 큰 의미가 부여되는 것을 부인 할 수 없다.

Ⅳ. 이주민 선교에 대한 성경적 · 선교학적인 이해

이미 위에서 이주민에 대한 용어와 관련하여 성경적인 고찰을 하였다.

21) 정노화, “한국사회의 다문화 사회진행과 선교”, 221.

이러한 고찰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이주민 선교에 대한 성경적 · 선교학적인 검증도 가능한 것이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주민 선교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시작하여 선교학적인 논의를 시도한다.

1. 성경에 나타나는 이주민에 대한 배려

1) 구약성경

성경은 선교의 책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22] 이러한 표현을 이해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속경륜을 포함하여 창조 질서의 회복을 계시하시며 실행하시는 목적에서 기록된 책이라면 당연히 선교의 책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선교의 책인 성경에서 이주민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배려가 발견된다면 이주민을 위한 선교는 성경적인 당위성을 가지는 것이다.

성경에 나타난 외국인에 대한 배려는 먼저 십계명에서 발견할 수 있다. 출애굽기 20:10절의 안식일 규정에서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다. 이러한 정신은 안식일에 안식하도록 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이스라엘이 타국에 객이 되었던 경험과 연계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종록은 이스라엘이 모세의 아들 게르솜과 관련하여 가지게 되는 나그네의 경험을 '게르 의식', 즉 종 혹은 외국인 노동자의 의식으로 설명하면서 관련된 성경의 가르침들을

22) 김영동, "외국인 노동자 선교에 대한 신학적 고찰(상), 외국인 근로자 선교(서울 :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전도부 외국인 근로자 선교 후원회, 1997), 12.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 그가 아들을 낳으매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출 3:22).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함이요(출 18:3).
>
>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정경을 아느니라(출 23:9).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에게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더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레 19:33-34)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신 10:18-19).[23]

이스라엘 가운데 대표적인 이주노동자는 엘리멜렉으로서 그는 흉년을 만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우거하였다(룻 1:1-5). 더욱이 아브람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같은 족장들에게도 이미 '게르'로 묘사하여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창 12:1)고 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아브람이 나그네로 우거하는 삶이 창세기 12:10-20에 잘 그려져 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이방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가르쳤다(렘 29:4-7).[24] 이러한 성경적인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주하여 사는 나그네 의식을 먼저

23) 이종록, "너희도 전에는 게르였다, 외국인 노동자 선교를 위한 구약성서적 이해", 외국인 노동자 선교와 신학(서울 : 한들출판사, 2000), 130.
24) Ibid, 132-135.

가지게 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스라엘이 '게르' 의식을 가지게 한 것은 순례자로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바르게 수행해야 한다는 본질적인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외국인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 것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구약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이 '게르' 이였음을 상기시키면서 나그네를 배려하도록 가르치고 있다(신 23:7-8, 24:17-22, 26:11).

이방인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인 배려가 표현된 것은 곡식을 거두는 규례와 관련하여 나타나는데 타국인을 위하여 열매나 이삭을 남겨둘 것을 명하였다(레위기 19:9-10, 23:22, 신 24:19). 계속하여 칠칠절 규례(신 16:9-12)와 초막절 규례(신 16:13-15)에서도 나그네를 위한 배려를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제사의 규례(레 17:8-9), 속죄일 규례(레 16:29), 유월절 규례(민 9:14, 대하 30:23-27), 피에 관한 규례(레 17:10), 신성모독 금지규례(레 24:16)에도 이방인들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을 때 본토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내국인을 구별하지 말고 동일한 법으로 적용하도록 했다(출 12:49, 민 9:14, 15:13-16, 신 24:14). 그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에도 외국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동일한 대우를 받게 하였다(신 31:9-13).[25] 따라서 구약에 이스라엘이 그들 가운데 거하는 이방인들에 대하여 보여준 태도보다는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의 배려와 가르침을 발견 할 수 있다.

25) Ibid, 145-147.

2) 신약성경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그들의 그릇된 선민의식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인식들과 다르게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신약의 교회 역시 그러한 경향을 확대시켜 나가는 모습을 발견 할 수 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 기간에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마을을 왕래하면서 그곳의 여인을 만남은(요 4:1-14) 당시의 상황에서 파격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예수님은 더욱 구체적으로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들린 딸을 고쳐주셨으며(막 7:24-30) 그리고 역시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다(눅 7:2-10).

특별히 예수님은 두 가지 사건에서 이방인을 멸시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말씀을 하셨으나 그것은 해석이 필요한 일이다. 하나는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들린 딸을 고쳐줄 것을 요청했을 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막 7:27)고 하신 일이다. 다른 하나는 12제들을 파송하실 때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마 10:5-6)고 하신 경우이다. 이것은 "복음전도에 있어서 우선적인 순위로서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또한 헬라인에게 라는(롬 1:16)"[26] 도식에서 해석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눅 24:47) 라는 말씀에서도 입증된다.

---

26) D. Guthrie, J. A. Motyer, A. M. Stibbs, D. J. Wiseman, ed., New Bible Commentary(Leicester : IVP, 1988, Third Edition), 829

사도행전의 교회는 그 출발에 있어서 다문화지역에서 방문한 사람들에 의하여 출발되었다. 15개의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들도 함께 오순절 성령강림을 체험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을 볼 수 있다(행 2:). 빌립은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가는 길에 접근 하여 복음을 설명하였다(행 8:26-49). 더욱이 바울의 이방인을 위한 선교적인 부름은 비록 그가 이방인의 지역으로 나아가서 그의 선교사역을 수행하는 형태이었지만 이러한 그의 의도에는 국내에 이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당연히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서신서의 내용에도 나그네들에 대한 배려를 발견할 수 있다. 디모데전서에는 감독의 자격에 "나그네를 대접하며"(3:2)라는 요소를 포함시켰으며,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격에 대해서도 나그네 대접을 언급하였다(5:10). 요한서신에도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다(요한삼서 1:5). 물론 여기의 나그네는 반드시 이방인으로만 한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그네를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약성경 역시 이방인 혹은 이주자에 대한 배려의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이주민에 대한 선교학적인 이해

1) 전 인류 혹은 모든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성경은 전 인류 혹은 모든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담고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관심은 기본적으로 이주민들을 위한 선교의 기초가 아닐 수 없다. 구약성경은 만민에 대하여 자주 언급하고 있는데 블라우(J. Blauw)는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보편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구약의 선교적 메시지를 위한 토대"[27]라고 말한다. 단지 구약성경의 주된 표현으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활동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하여 전 인류와 모든 족속에 관여하신다는 사실이다.

> "이스라엘 민족에 중심을 둔 구속사는 다른 민족에게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에게만 독점되는 신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세계 만민들과 관계를 갖고 계신다. 하나님이 온 세계의 하나님이라면, 그는 필연적으로 애굽 민족, 팔레스틴 민족, 바빌로니아 민족, 앗시리아 민족 및 그 외의 민족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28]

특별히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인류가 범죄로 심판을 받게 되는 노아 홍수의 사건(창 10장) 후에 다시 땅 위에 노아의 3아들로 통하여 전 인류를 형성할 계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창 10:5, 10:15-19, 10:32), 여기 이 계보가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은 노와와 무지개 언약을 맺었다면 그 언약에 포함되지 않을 어떤 족속이나 민족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나아가서 바벨탑 심판으로 인류를 분산 시키지만 여기에도 유의를 끄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심판하심을 보이시면서도 구원의 관심을 계속하여 가지시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로 심판 아래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인류의 하나님으로서 구원의 유일한 희망이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다.[29]

---

27) Johannes Blauw, The Missionary Nature of the Church(New York : McGraw-Hill, 1962), 17.

28) Roger E. Hedlund, Mission to Man in the Bible, 송용조 역, 성경적 선교신학(서울 : 서울성경학교출판부, 1990), 30.

이러한 보편성에도 불구하고 오직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구속사란 "세계 만국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는 이스라엘 역사의 배경을 이루는"[30] 의미를 가지기에 이스라엘의 구분은 일시적으로 전 인류의 구원에 대한 예언의 중요성을 지니는[31]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그들이 모든 족속 가운데 "여호와 사신"이 되기 위한 것과,[32] 제사장의 나라로 봉사하기 위한 것[33]이었다. 성경도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먼저 구원하신 목적을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데"(출 19:6) 있었음을 밝힌다. 따라서 "하나님님께서 온 세계 민족 중에서 그의 백성을 불러 모으신다는 사상은 창세기에서 말라기 까지 나타난다. 이러한 구원에 대한 범위의 세계성이 곧 구약 선교의 뿌리"[34]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전 인류 혹은 모든 족속의 구속에 대한 관심과 계획은 당연히 이주민 선교에 대한 신학적인 기초와 배경이 되는 것이다.

2) 성경에 나타나는 이주민을 위한 배려에 담긴 선교적인 의미

신 · 구약성경에서 이주민들에 대한 배려를 이미 위에서 확인했다. 이주민들에 대한 배려는 단순히 윤리적인 배려의 의미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

29) George W. Perters, A Biblical Theology of Missions(Chicago : Moody Press, 1972), 87.
30) Blauw, op.cit., 19.
31) J. H., Bavinck, An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Missions(Phillipburg :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60), 13.
32) Richard R. De Ridder, Discipling the Nations(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75), 32.
33) H. H. Rowley, The Biblical Doctrine of Election(London : Lutterworth Press, 1952), 45.
34) 전호진, 선교학(서울 : 개혁주의신행협회, 1994), 39.

의 회중에 포함되도록 허용하는 것은 이주민의 선교를 이해할 수 있는 선교학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다.

먼저 성경에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회중에 포함되도록 허용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에 이미 혼합된 다수 민족이 있었을 수 있었으며,[35] 또한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은 모세의 율법을 받아들여 언약의 백성임을 확인할 때에도 이미 그들 가운데 동화되었던 집단들이 있었다.[36] 신명기 23:7-8절에 의하면 에돔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까지도 3대 후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가담하면 유월절도 지킬 수 있었고(민 9:14), 번제나 희생을 드릴 수도 있었다(레 17:8). 구약성경의 이러한 입장에 대하여 피터스(George W. Peters)는 구약성경의 계시 자체가 하나의 폐쇄적인 민족 종교가 아니라 이방인도 환영하며 동등한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열어 놓은 것을 보여준다고 밝힌다.[37]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온 이방인들을 위한 배려 역시 선교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스라엘이 드리는 십일조 가운데 일부는 이스라엘 성읍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에게 제공하도록 했으며(신 14:28-29),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다양한 배려를 명하였다(신 24:14, 17, 19, 20). 추수 때에 곡식 이삭을 남겨 이방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했으며(레 17:8), 타국인을 이스라엘이 낳은 자 같이 여기도록 명했다(레 19:33-34). 이방인들을 향한 이러한 배려 역시 그들을 이스라엘의 회중에 포함시키는 의미가 있으며, 이방인들의 구원도 구속경륜 속에 포함시킨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 대하여 프레이타그(Walter

35) John Bright, The History of Israel(London : SCM Press, 1959), 120.
36) Ibid, 123.
37) Peters, op.cit., 114.

Freytag)는 “그들은(이방인)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자신을 증거 하셨으며,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위한 의사를 간직하고 있었던 백성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참으심으로 존재한 백성이다”[38]라고 말한다. 디 리더(De Ridder)에 의하면 이방인들 역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할 대상들이었기에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이 발견 되도록 구상한 것으로 설명한다.[39] 따라서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온 이방인들에 대한 배려는 선교의 대상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3) 구심적 형태에서의 선교적인 의미

선교를 본국 중심에서 타국으로 나가서 사역하는 선교와 타국에서 본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역하는 양방향에 대하여 연구한 학자는 순드클러(Bengt Sundkler)이다. 그는 탄자니아에서 사역한 후 웁살라 대학에서 선교지 교회와 선교(young churches and mission)를 가르치는 학자로서 신 · 구약을 통하여 ‘원심적’(centrifugal) 선교와 ‘구심적’(centripetal) 선교의 경향들을 추적하였다.[40] 이러한 경향의 추적에서 원심적 선교는 주로 신약의 경향으로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외방으로 나가는 선교이었으며, 구심적 선교는 구약의 경향으로서 외방에서 이스라엘에 들어온 사람들을 위한 선교로 구분되었다. 물론 구약에도 원심적 선교가 없는 것은 아니며 신약에도 구심적인 선교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경향의 면에서 그러하다는 것이다. 다음의 표는 성경에 나타나는 것으로 선교에 있어서 양방향에서의 사역들을 참고할 수 있다.

---

38) Walter Freytag, The Gospel and the Religions, IMC Research Pamphlet No.5(London : SCM Press, 1957), 35.
39) De Ridder, op.cit., 42.
40) Johannes Verkuyl, Contemporary Missiology(Grand Rapids : Eerdmans, 1987), 59.

* (표 9) 구심적 선교와 원심적 선교의 경향비교[41)]

메카니즘 (구조)	구약	신약	초대교회에서 1800년 까지	현대 선교 시대
자발적으로 감 원심적 (팽창적)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소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부근의 다른 나라들에 전파 *바리새인들이 바다와 육지를 건너감	*사마리아에서의 예수님 *베드로가 고렐료에게 감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들 *바벨론, 로마, 구브로 등에 거주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증거	*성패트릭(Patlick)이 아일랜드로 감 *켈트족유랑민(peregrini)이 영국과 유럽으로 감 *아우구스티누스회 수사들이 중국, 인도, 일본, 미국으로 감 *모라비안 교도들이 미국으로 감	*윌리엄 캐리와 제1세대 선교사들 *허드슨 테일러와 제2세대 선교사들 *제3세대부터 현재까지
비자발적으로 감 원심적 (팽창적)	*애굽에 종으로 팔린 요셉이 바로에게 증거함 *나오미가 기근 때문에 룻에게 증거함 *요나-내키지 않아 하는 선교사 *히브리 소녀가 나아만의 집에 잡혀감 *바벨론에 포로로 간 히브리인들이 자기들을 잡아간 사람들에게 증거 함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아 거룩한 땅에서 나와 로마 제국 전역과 그 너머까지 가지 않을 수 없게 됨	*울리파스가 고트족에게 종으로 팔림 *추방된 아리아족 감독들이 고트 지역으로 감 *바이킹들에게 잡혀간 그리스도인들이 바이킹들을 개종시킴 *이주자들과 청교도들이 미대륙으로 추방되어 인디언들에게 선교함	*제2차세계대전 때 전 세계에 파병 되었던 그리스도인 병사들이 돌아와서 150개의 새로운 선교단체를 시작 *우간다 그리스도인들이 아프리카의 다른 지역으로 도피함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북쪽보다 덜 기독교화된 남쪽으로 피난하고. 후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에 근로자로 나감
자발적으로 옴 구심적 (흡인적)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궁정으로 찾아옴 *룻이 모압에서 유다로 가기로 선택 함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음 *고넬료가 베드로를 부르러 보냄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도움을 청함	*고트족이 기독교화된 로마를 침략하여 기독교 신앙에 대해 더 알게됨 *바이킹이 기독교화된 유럽에 침략하여 그 접촉을 통해 궁극적으로 신앙을 갖게 됨	*기독교화된 서구에 세계 각국의방문객들. 유학생들. 사업가들이 유입됨
비자발적으로 옴 구심적 (흡인적)	*이방인들이 고레스 대제에 의해 이스라엘에 정착함(왕하 17장)	*로마 군대가 이방인들의 갈릴리 지역을 점령하고 침투함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노예들을 데려옴	*공산주의에서 피해 나온 난민들 *보트 피플, 쿠바인들이 강제로 추방 됨

41) Ralph D. Winter and Steven C. Hawthorne, ed, Mission Perspectives, 정옥배 역, 미션 퍼스펙티브(서울 : 예수전도단, 2000), 187.

이러한 경향의 분석에 의하면 선교란 양방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미 위에서 성경에 나타나는 이주민들에 대한 고찰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와서 선교의 대상이 되는 경우들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재 외국의 이주민들이 국내에 머물 동안 그들을 향한 사역은 선교학적으로 구심적인 선교에 해당하는 것이다.

4) 현대선교 전략에 포함된 이주민 선교의 의미

누구도 기독교 선교가 양방향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문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해외의 타문화권의 사역에는 여러 가지의 제약이 따른다. 먼저는 언어와 문화적인 장벽이 항상 남아 있다. 따라서 해외 선교사로 나가는 경우에 문화충격(cultural shocking)을 경험해야 하며 현지어를 배우는 고충을 거친다. 나아가서 해외선교의 문은 더욱 닫혀가는 현상이어서 기독교 선교가 필요하지만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장벽들 앞에서 현대선교의 전략들 가운데 하나는 이주민들을 향한 선교이다. 국내에 유입되는 이주민들을 위한 사역은 그들 가운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본국으로 들어갔을 때 언어와 문화의 장벽 없이 사역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국내의 이주민을 위한 선교사역의 필요성은 이미 서구사회에서도 절감되었던 문제이다. 미국에서는 1981년에 ACMI(Association of Christians Ministering among Internationals)가 설립되었는데 북미의 유학생들을 위한 캠퍼스 사역, 교회의 외국인 사역, 교단의 외국인 사역, 그리고 선교단체들의 사역 등을 네트워크화한 것이다.[42] 독일에서도 1985년에 함부르그 복음주의 독일교회와 외국인 교회들이 연합으로

42) 이순홍, 지교회의 자국 내 외국인 선교전략(파주 : 한국학술정보(주), 2009), 78.

하파(HAFA : Hamburger Arbeitkreis für Ausländer)라는 선교 단체를 결성하여 도시 내에 외국인들을 집중적으로 선교하는 결의를 하였다.[43]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학자들 가운데는 한국교회의 이주민을 위한 사역을 선교전략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들을 계속해오고 있다. 이태웅은 한국선교를 위한 선교방법과 전략의 동향으로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선교전략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중요성을 피력했다. 첫째는 이주노동자들이나 외국 유학생들은 언젠가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기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중요하며, 둘째는 그들은 주로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기에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선교할 수 없는 지역이며, 셋째는 성경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과 외국인들을 돌보아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고 했다.[44] 강승삼 역시 다음과 같이 요청하고 있다.

>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국교회가 직접 찾아가서 선교를 했어야 할 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이 땅으로 이끄심으로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과 영적 통찰력을 갖추고, 이 주어진 기회에 그들을 향한 선교의 비전을 키워가며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 미전도 지역인 10/40창 지역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45]

그는 계속하여 외국인 근로자 선교의 필요성을 3가지로 밝혔는데 이태웅과 유사한 입장이다. (1) 외국인 근로자들의 전도를 위한 접촉은 선교현지에서 보다 훨씬 용이 하며, (2) 그들은 대부분 선교사 입국과 활동이 어려운 창의적

---

43) 김승연, 21세계 한국교회 어디로 가야 하나?(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97), 224.
44) 이태웅, 한국교회의 해외선교(서울 : 죠이선교회출판부, 1997), 179-180.
45) 강승삼, 21세기 선교 길라잡이(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98), 244.

접근 지역에서 온 사람이며, (3) 성경에 의하면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말한다.[46] 이와 같이 이주민에 대한 선교는 현대선교신학의 전략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함을 발견할 수 있다.

5) 포괄적 혹은 통전적인 개념에서의 선교에 포함되는 의미

전통적으로 이해되어 온 선교의 개념은 현대선교신학의 발전에 의하여 변화되고 있다. 전통적인 개념에 의하면 대게 다음과 같은 3가지 안에서 받아들여져 왔다. 보쉬(David J. Bosch)는 그들 중에 2가지를 지적하였다. 하나는 전도와 선교를 지리적(geographical)으로 구별하여 전도는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선교는 타국에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해한 개념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신학적(theological)으로 구분하여 전도는 이미 복음이 전해진 지역의 사람들에게(No-more-Christians)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의 사람들에게(Not-yet-Christians)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해한 개념이었다.[47] 이와는 다르게 문화적Cultural)으로 구분하는 입장도 유행하였는데 전도는 동일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는 타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해한 개념이었다. 특별히 이러한 개념으로서 선교를 정의한 학자들 중에는 맥가브란(Donald A. McGavran)이 있는데 그는 선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복음을 가지고 문화의 경계를 뛰어 넘는 것"[48]으로 주장하였다. 이상의 3구분들에 의하면 선교 역시 지역과 대상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경향이었다.

---

46) Ibid, 246-247.

47) David J. Bosch, Witness to the World(Atlanta : John Knox Press, 1980), 12.

48) A. F. Glasser and D. A. McGavran, Contemporary Theologies of Mission(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83), 26.

선교신학의 발전에 의하여 선교란 단순히 복음전도에만 머물 수 없는 입장들로 이해되었다. 복음전도를 중심으로 섬김의 사역들이 함께 포함되는 포괄적인 혹은 통전적인 개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포괄적인 구분에 의하면 선교란 복음전도와 섬김의 사역이 함께 수행되는 개념이다. 케인(J. H. Kane)에 의하면 "복음의 구속적인 선포"의 활동을 전도로, 전도활동 뿐만 아니라 교회 개척, 의료 봉사, 교육 사업, 농업 사업 등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선교로 이해하였다.[49] 복음주의 선교신학의 입장을 대변하는 로잔언약(Lausanne Covenant) 역시 복음전도와 세계 속에서의 책임 있는 봉사를 강조하는 포괄적인 사역을 제시했다.[50] 스토트(John R. W. Stott) 역시 "만일 우리가 세계 속에서 기독교적 봉사로서 복음전도와 사회활동을 포함하는 이 넓은 의미의 선교에 대한 개념을 받아 수용한다면" 이것은 주님의 지상 선교의 모델을 수용하는 것으로 기독교인이 더욱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하였다.[51] 따라서 필자도 이미 "선교란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포하는 복음전도의 중심적 사역과 더불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봉사의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 되게 하는 포괄적 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52] 정의한 바 있다.

선교에 대한 포괄적 혹은 통전적인 이해에 의하면 선교란 기독신자와 교회가 복음전도의 활동을 넘어선 사회적인 봉사와 섬김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으로서의 선교는 당연히 해외에서 국내에 이주하여 있는

---

49) J. Herbert Kane, The Christian World Mission : Today and Tomorrow(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81), 141.

50) J. D. Douglas, ed, The Lausanne Covenant, Let the Earth Hear His Voice(Minnesota : World Wide Publications, 1975), 4.

51) John R. W. Stott, Christian Mission in the Modern World(London : Falcon Books, 1975), 34.

52) 이복수, "선교에 대한 이해의 재고", 고신신학(부산 : 고신신학 연구회, 1995(창간호), 200.

사람들에게 복음전도는 물론 그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사역을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주민을 위한 사역이 선교에 포함되는 것은 선교학적으로도 설명이 타당한 것이다.

V. 선교 대상으로서 이주민의 현실 이해

이주민들을 위한 선교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재되는 요건이 있다. 그것은 그들의 현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주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그들을 위한 온전한 선교 사역이 수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치 하나님께서 구원 받아야 하는 인간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신다면 구원의 사역은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주민들의 보편적인 고충들을 파악해 본다.

1. 한국인의 다문화주의를 수용하지 않는데서 오는 어려움

이주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요인들 중에 하나는 내국인들이 이주민들에 대하여 마음을 열지 않는데서 느끼는 어려움이다. 사회조사 전문기관인 (주)리서치21이 2008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만20세 이상의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이 단일민족 혈통유지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는 가를 묻는 질문에 찬성 62.9%, 보통 26.6%, 반대가 10.5%, 그리고 한국이 단일민족 국가라는 사실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가를 묻는 질문에 찬성 44.1%, 보통 39.6%, 반대 16.3%로 조사되었다.[53] 또한 이주민에 대한 권리부여 인식 조사에서 한국의 전통과

풍습은 다른 사람들이 완전하게 한국인이 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가를 묻는 질문에 찬성 45.8%, 반대 19%로 나타났다.[54]

이러한 경향은 내국인이 이주민들에 대하여 마음을 열지 않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주민이 직장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에 혈연, 지연, 학연의 연줄로 인하여 불친절, 무관심, 냉담, 무시의 배타적인 취급을 당하게 된다. 이러한 배타적인 현상도 미국사람이나 백인에 대해서는 호의적이고 관용적인 반면에 흑인이나 동남아 사람들에게는 더욱 편향적인 경향이다.[55] 서구의 문명국가 외에 다른 지역에서 오는 이주민들은 내국인들이 쉽게 맞아주지 아니하는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2. 언어문제로 인한 어려움

외국인들은 거의 보편적으로 한글을 배우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조선족이나 고려인들은 다소 예외이다. 그 외의 외국인 이주민이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있는 대표적인 어려움은 언어문제이다. 특별히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이 문제는 일터에서 동료사이의 소통문제, 업무적으로 신뢰를 주지 못하는 문제, 고용주가 믿고 일을 맡기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다.[56] 산업재해의 빈번한 발생도 언어문제가 요인이 되어서

---

53) 윤인진, 송영호, 김상돈, 송주영, 한국인의 이주노동자와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파주 : 한국학술정보(주), 2010), 본서의 p.8에 조사업체와 기간 대상인원을 밝혀놓았음.
54) Ibid, 119.
55) 정기선,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문화적 적응”, 이혜경, 정선기, 강수돌, 설동훈, 석현호, 한국사회와 외국인 노동자(서울 : 미래인력연구센타, 1998), 128.
56) 이지연, “다문화사회 속에서의 선교”,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33.

이주노동자들 중에는 “우리들의 잘린 손가락을 다 모으면 한 가마니가 넘을 것”[57]이라는 비탄한 표현을 하기도 했다.

특별히 이주민 가정의 경우에 부모의 한국어 실력의 부족은 자녀교육에도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자녀들 역시 초등학생 수준의 한국어 실력으로 중고등 학교에 진학하게 될 때 부모와 의사소통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학습부진은 물론 집단 따돌림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 중 20%가 집단 따돌림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10%는 초등학교 미 진학 및 중퇴, 20%는 중학교 미 진학 및 중퇴의 현상으로 나타난다.[58] 2009년도 조사로서 다문화 가정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가장 힘든 요소들은 여성의 경우에 언어문제(22.5%), 경제문제(21.1%), 자녀문제(14.2%)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는 경제문제(29.5%), 언어문제(13.6%), 편견 및 차별의 문제(9.4%) 순으로 나타났다.[59] 타국에서의 삶에 언어의 문제는 문화적인 이해의 어려움을 함께 수반하는 문제로서[60] 삶에 전체적인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3. 노동과 인권의 문제

노동과 인권의 문제는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요소들을 포함하는 어려움을 일으킨다. 노동과 인권의 문제는 모든 종류의 이주민이 가지고 있기 보다는 이주노동자에게 더욱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이다. 이미 수년전에 발행된

57) 송병준 외,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미래(서울 : 미래인력연구센타, 1997), 201.
58) 이지연, op.cit., 37.
59) 박성범, op.cit., 132.
60) 이복수, 차재국, 신지영, 선교와 언어(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2002), 20.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백서에」에 의하면 장시간 노동, 미성연자 고용,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저 임금, 임금체불, 산업연수생의 강제적립금 문제, 산업재해, 사업장 내 폭행, 인신 구금, 단속과 추방, 여권 혹은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압류, 국제결혼한 후 빼앗긴 가족의 권리, 여성 노동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인권 침해들, 입국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거액의 수수료, 중소기업협회와 사후관리업체의 횡포, 등이 지적되었다.[61]

특별히 이주노동자들 가운데는 소위 불법 체류의 노동자들도 있다. 이들은 모든 종류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임금, 노동시간, 심지어 금전을 갈취를 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더욱 어려움을 겪는다.[62] 2008년 12월1일에서 12월31일까지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이 신분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어려움이 없다는 편(3.4%), 보통(14.5%), 어려움이 있는 편(82.1%)으로 나타났으며, 임금체불과 폭행에 어려움이 없는 편(4.5%), 보통(15.8%), 어려움이 있는 편(79.7%), 건강 및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없는 편(4,1%), 보통(18.4%), 어려움이 있는 편(77.5%)로 나타났다.[63]

합법적인 이주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역시 노동관계의 문제점들이 있다. 취업의 어려움이 없다는 편(13.7%), 보통(35.3%), 어려움이 있는 편(50.8%), 사회적인 편견에 어려움이 없는 편(7.7%), 보통(28.5%), 어려움이 있는 편(63.8%), 신분상의 불이익에 어려움이 없는 편(9.2%), 보통(28.2%), 어려움이 있는 편(62.7%), 임금체불 및 폭행에 어려움이 없는 편(11.1%), 보통(30.9%), 어려움이 있는 편(58.0%), 건강 및 산업재해에 어려움이 있는 편(9.4%), 보통

61) 방휘탁 편,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백서(서울 : 다산글방, 2001), 19. 본서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사례 100종류를 조사한 것으로 본 인용은 목차에서 열거된 항목들을 옮긴 내용이다.
62) 이만열, op.cit., 71.
63) 윤인전, 송영호, 김상돈, 송주영, op.cit., 107.

(30.6%), 어려움이 있는 편(60.0%)로 파악되었다.[64] 불법 체류자와 합법적 이주자를 각각 비교해 보면 비율에서 차이는 있지만 노동과 인권 문제에 전체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주거생활의 문제

주거문제 역시 다른 종류의 이주자들보다 주로 이주노동자들에게 더욱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거 환경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45.7%가 방의 부족 혹은 면적이 협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1.4%는 화장실 사용의 불편을 호소하였다. 특별히 이런 문제를 야기 시키는 요인들 중에는 고용허가제에 외국인 노동자에게 기숙사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있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 스스로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비싼 임대료에 대한 부담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주로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 공장 안에 임시로 마련되는 숙소에서 지내다 보니 난방 장치나 온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어렵게 생활하게 되는 것이다.[65] 임시로 마련되는 숙소란 주방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을 것이며, 목욕시설도 미비한 가운데서의 생활이기에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세를 들어 살든 회사의 기숙사에서 살든 간에 독방 형태의 삶이 아니어서 3~4명 정도의 동료 혹은 친구들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 시정개발 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평균 4.5명이 한 방을

64) Ibid, 105.
65) 정노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만난 하나님", 하나님 나라와 이주노동자 선교(서울 : (사)기독교산업사회연구소,2004), 218.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다소 나은 환경으로서는 산업연수생들에게 제공되는 기숙사 혹은 합숙소로서 기본적으로 난방과 샤워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진 곳이 70-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66]

5. 결혼 이주자들의 문제

국제결혼이 증가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증가의 요인은 몇 가지로 분석된 바 있다. 첫째는 국내의 남성과 여성이 숫자상 불균형으로 인하여 결혼을 못하는 남성의 수가 급증한 것이다. 둘째는 국내에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여성이 늘어나는 것이다. 셋째는 한국 남성들 중에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인 상황에서 한국 여성과 결혼하지 못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넷째는 결혼을 빙자하여 외국인과 인신매매성의 위장결혼을 용인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이다. 다섯째는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를 유입하는 정책으로 인하여 동남아에서 한국으로 이주하는 관심이 높아진 것과 관련하여 여성들 중에는 결혼을 통한 이주를 자신의 생존과 꿈을 펼치는 대안으로 선택하는 경향이다.[67] 이러한 요인들과 관련하여 결혼 이주자들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주로 동남아 지역의 신부를 맞게 되고 그들이 결혼 이주자가 되는데 주로 이들에게 어려움이 많다.

결혼 이주자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들 중에는 가정폭력의 문제가 심각하다. 추정되는 원인은 주로 언어, 문화, 음주, 여성비하 등으로 나타나는데 결혼 이주자로 광주 · 전남 지역에서 살고 있는 여성 100명(2002, 광주여성발전센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0명이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있었

66) 정기선, op.cit., 112.
67) 정노화, “한국사회의 다문화 사회진행과 선교”, 227-229.

다. 학대의 종류로는 폭행 57%, 폭언 18%,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제적인 학대 12%로 나타났다. 그리고 폭행의 빈도로서는 한 달에 2번 42%, 1번 33%, 3번 13%, 4번 이상 12%로 나타났다.[68]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의회가 2007년 7월부터 12월까지 베트남과 필리핀 등의 13개국 출신으로서 국제결혼을 한 이주여성 955명을 대상으로 이주여성의 건강보건상황을 심층조사했는데, 임신 중 언어 및 문화 문제로 영양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였으며(잘 먹지 못함이 49.6%), 경제와 언어 문제로 임신 중에 치료를 받지 못한 문제도 60%가 넘었다.[69]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배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 가정 내에서 '돈으로 사 왔다'는 견해 및 같은 문화권의 사람들과 접촉하여 한국가정을 떠나 도망 가 버릴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거의 같은 문화권 사람들을 접촉하지 못하도록 괴리시키는 한국 가족들의 배타적 심리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들에 대한 인간적 배려가 무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이 겹쳐 아무 연고도 없이 한국으로 결혼해 오는 바람에 남편이 죽거나 하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소외계층으로 전락해 버린다.[70]

이처럼 가정이 정상적인 동기로 이뤄진 것이 아닌 토대에서 기족과 친지들이 비인격적으로 대하며 남편들 역시 알코올중독 혹은 도박의 습성을 가지고 해외에서 온 신부를 이해하려고 하기 보다는 습관적인 폭력을 가하기 때문에 적지 않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다.

---

68) Ibid, 233.

69) 장성진, "다문화 사회 속에서 이주민의 사회적 인식과 이에 관한 한국교회의 선교 방안 모색", 문화와 사회변동, 1910년 에딘베러 선교사대회 100주년 2010 한국대회 논문집 8(서울 : 한국연합선교회, 2011), 105.

70) Ibid, 105-106.

6. 이주 여성의 자녀교육 문제

결혼으로 이주하는 여성들에게 있는 어려움은 자신에게만 끝나지 않고 자녀들에게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주여성들의 경우에 자신이 언어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마저도 학습능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이 어렵게 되는 상황이다.

>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은 크게 두 가지로 언어발달 장애,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학업부진과 낮은 자아 존중감, 주변 사람들의 편견, 부모의 양육 태도, 자신의 외모로 인한 정체성의 혼란이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여성 결혼 이민자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와 연관이 있으며 특히 자녀들의 학습능력과 정체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혼 이민자의 미숙한 한국어 의사소통은 가족관계, 사회생활, 자녀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무엇보다 언어를 배울 단계에 들어선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71]

실제로 언어문제 때문에 자녀의 숙제를 못 보아주거나(21%), 대화가 거의 없는 경우(16.2%)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자녀는 자녀대로 집단따돌림의 경험자(17.6%) 중 외국인 엄마의 사유가 가장 많았으며(34.1%), 특히 동남아 출신 여성의 자녀와 농촌지역에서 심각한 상황(낙태 사유 중 '혼혈아 걱정' 비율이 18.6%)으로 나타났다. 혼혈아의 왕따, 자살과 비행의 급증은 학원문제일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72]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도 점점 더 다문화사회로 나가는 과정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될 것을 예상하지

71) 윤인진, 송영호, 김상돈, 송주명, op.cit., 180.
72) 정노화, "한국사회의 다문화 사회진행과 선교", 234.

않을 수 없다.

이상에서 살펴온 바에 의하면 이주민의 현실은 전체적으로 힘든 삶이 아닐 수 없다. 문화차이와 언어의 문제를 기초로 직장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 주거생활의 열악함, 사회 속에서 무시와 차별대우, 가정에서 행복하지 못한 결혼생활, 심지어 자녀들에게까지도 이어지는 힘든 상황의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Ⅵ. 이주민 선교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이 이미 1백 10여만 명을 넘어섰는데 여기에 불법으로 지내는 사람들을 합하면 1백 수 십만 명에 달하며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국내의 이주민들을 위한 선교는 상당한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주민들의 상황 역시 여러 면에서 겹겹의 어려움들을 경험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독교의 선교의 개념이 복음전도를 중심으로 섬김과 봉사의 사역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할 때 복음과 보살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선교는 여러 면에서 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할 수 있다.

1. 전국교회 혹은 교단적인 차원에서의 방안

1) 다문화 혹은 이주민의 다양성에 대한 교육의 시행

우리의 단일민족 사상은 상당히 전통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이러한 입장은

우리와 다른 문화의 사람들을 수용하는데 장애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한국교회의 성도들 역시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73] 이주민 선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우선적인 과제로서는 먼저 다른 문화 혹의 이주민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교육이 전국교회 혹은 교단적인 차원에서 시행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국민과 기독교인을 상대로 다문화적 다양성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교회에서 다문화 가정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한국인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변화와 상호 대화의 자세를 갖도록 선교의 노력이 필요하다"[74]는 지적은 타당성을 가진다. 동시에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우리의 사회에서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이주자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는 서구 지향주의나 문화사대주의, 그리고 신민족주의를 벗어나면서 다문화사회 건설에 필요한 신학적인 이해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75] 한국교회 전체가 이러한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기에 전국교회 혹은 교단적인 차원에서 교육이 이루어져 나가야 할 것이다.

2) 선교의 포괄적 개념 교육

이미 위에서 이주민에 대한 선교학적인 이해에서 선교의 포괄적인 개념과 관련시켜서 설명하였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편협한 보수주의 입장은 복음전도만을 선교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전폭적으로 복음전도만을 함의하는 전통적인 선교관의 극단적인 형태는 복음의 구두선포(verbal proclamation)에만 집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76]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물론 지금은 이보다는

73) 정미경, "다문화사회를 향한 한국기독교의 이주민선교", 복음과 선교, 제16집,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고양 : 올리브나무, 2011), 26.
74) 임희모, "지구화와 다문화 상황에서 한국교회의 선교적 과제", 52.
75) 장훈태, "다문화 사회와 교회의 선교적 대응", 복음과 선교, 제9집,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서울 : 한들출판사, 2008), 22.
76) Stott, op.cit, 15.

넓은 개념을 함의하는 견해를 가지지만 여전히 사회봉사나 섬김의 사역을 선교의 영역에 넣기 보다는 겨우 복음전도를 위한 수단의 차원에서 수용하는 정도이다.77)

이러한 경향은 보수성향의 한국교회 안에 있어서 선교를 복음전도의 차원에서만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주민들을 섬기는 사역을 선교로 이해하면서 그들의 섬기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돌보는 선교의 수행을 위해서는 전국교회 혹은 교단적인 차원에서 선교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이주민들을 섬기는 사역은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의 동정적인 행동의 표현으로 남을 뿐이다. 따라서 선교의 포괄적인 개념에 대한 교육이 전국교회 혹은 교단 차원에서 일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

3) 교회의 목회 모델의 변화

목회자의 목회 영역은 사회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이것은 복음은 불변하지만 복음전파의 방법은 계속하여 변화가 따라야 하는 원리에 속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오늘의 우리 사회에 이주민이 증가되는 상황을 목회사역에 포함시켜 고려한다면 반드시 이주민을 배려하는 목회의 모델도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목회적 틀을 가지고 선교를 좁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 문제를 접근하는데 개종의 문제냐, 선교의 문제냐, 아니면 인권의 문제냐 라는 구태의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78) 따라서 "교회와 목회의 사역을 종래와 같은 관점에서 좀

77) Ibid, 16.
78) 임희모, "이주노동자에 대한 선교신학적 접근", 외국인 노동자 선교와 신학((서울 : 한들출판사, 2000), 212.

더 확대하고 개방하는 것이 필요"[79]하며, 이러한 방향에서 "교회의 선교와 목회도 다문화사회를 위한 전향적인 대안을 마련해야"[80] 할 것이다.

박성범은 "다문화 교육목회"에 포함해야 할 내용들을 다섯 가지로 제안하였다. (1) 코이노니아(koinonia)와 관련하여 기독교의 공동체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하는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면에서 다문화 목회를 담아내며, (2) 레이투르기아(leiturgia)와 관련하여 기도와 예배 속에서 다문화 목회를 표현해 내며, (3) 디다케(didache)와 관련하여 한국교회의 성도들과 새로운 구성원인 이주민들이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삶에 변형이 이루어지게 하며, (4) 케리그마(kerygma)와 관련하여 다문화적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루어가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과제에 대하여 제시하며, (5) 디아코니아(diakonia)와 관련하여 그리스도의 섬김의 모습을 성도들이 이주민 이웃에게 되새김질 하도록 하는 방향에서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다.[81]

이주민들을 위한 목회의 효율성 확대와 관련하여 이미 외국인 노동자 해당국의 목회자가 사역하는 교회도 생겨나고 있지만 이주민의 본국에서 "유학 온 목회자 혹은 이들 노동자들 중에 지도력이 있고 신앙심이 있는 사람을 전임 사역자로 초빙하는 문제"[82]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일이 필요하다.

특별히 교회의 목회모델 속에 다문화 가정 혹은 이주민들을 위한 사역들을

79) 이만열, op.cit., 87.
80) 장훈태, op.cit., 33.
81) 박성범, op.cit., 145-147.
82) 이만열, op.cit., 87. 이병수도 현지인 사역자의 사역이 필요함을 강조함, 이병수, "이주 노동자 선교방안", 고신선교, 제3호(부산 : 고신대학교선교연구소, 2004), 103.

포함시키는 일을 위해서는 신학교가 먼저 목회자들을 교육하는 교과과정 속에 포함시키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신학교육의 과정에 포함될 때 더욱 확고하게 정착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이러한 목회모델의 확대는 매년 배출되는 수많은 무임목사들과 전도사, 강도사들이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사역에 다양하게 투입되는 길도 열리게 될 것이다.

4) 이주민 사역을 위한 선교단체 혹은 교회 간의 협력방안 모색

국내의 이주민들은 도시와 시골을 구분 할 수 없이 분포되어 있다. 도시와 산업의 현장에는 이주노동자들이 많은 반면에 시골은 결혼 이주자들이 계속하여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교회나 시골교회 모두가 이주민들을 위한 사역의 장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토대 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주민들을 위한 사역에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바른 협력의 체계가 이루어지면 불필요한 힘을 소비하지 않고 효과적인 사역을 수행할 수 있다.[83] 이미 협력의 방안이 없는 이주민들을 위한 사역은 "자칫 잘못하다가 불필요한 경쟁 그리고 혼란과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 분명"[84]하다는 염려도 있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선교사역단체들 간에도 "협력이 우선되어야 구체적이며 일관된 선교정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는 한 앞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85]도 지적되었다.

---

83) 강승삼, "한국교회 선교 연합 운동의 현황과 방향", 선교한국 KMQ, 2002년 여름호, 16-17. 김희수, "국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한국교회의 선교전략 연구", 선교학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선교대학원, 2000, 71-72.

84) Ibid, 86.

85) 강명규, "외국인 근로자 선교사역", 선계선교의 비전과 협력(서울 : 도서출판횃불, 1996), 202.

(1) 자료 혹은 정보공유를 통한 협력

"한 교회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이나 작업이 다른 교회와 공유되지 못하면 이 또한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주노동자를 위한 설교문과 전도지, 의료, 복지지원 등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 현안이다. 이를 위한 연합단체의 효율적인 운용이 요구된다."[86] 전국교회 혹은 교단차원에서의 협력 방안에 우선적인 요소는 이주민 사역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교환 혹은 공유이다.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 보다는 100여년 이상 앞서서 자국 내의 이주민 선교 경험이 있는 미국, 캐나다, 네델란드, 독일,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같은 나라들은 이주노동자 선교단체들과 교회들이 정보교류와 협력을 위한 연구들이 있었다.[87] 현재 미국의 ACMI(Association of Christians Ministering among Internationals)는 미국 내의 외국인 선교를 위한 초교파적인 선교단체들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진 것인데 이러한 협력이 한국에도 필요하다.[88] 장훈태는 교회와 각 교단 간에 연계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첫째, "정확한 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과 둘째, "교회마다 이주여성 국가 언어 사용 명단을 확보하고 외국인과 함께 문화교실을 통한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하였다.[89] 특별히 정보공유를 위해서는 사이버를 활용하는 일이 효율적이며,[90] 현재 우리나라의 IT기술은 이러한 활용을 위한 충분한 토대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다.

---

86) 인명진, 이주노동자에 대한 교회의 역할", 교회성장, 2003년 7월호, 교회성장연구소, 155.
87) 이재혁, "국내 이주노동자 선교의 필요성과 실행 가능한 선교전략", 하나님 나라 이주노동자 선교(서울 : (사)기독교산업사회연구소, 2004), 297.
88) 이순홍, op.cit., 216.
89) 장훈태, op.cit., 39.
90) 조귀삼, op.cit., 69.

(2) 전문인 사역자 양육 및 활용을 위한 협력

이주민 사역을 위한 전문인의 양육이 필요하다. 이주민들을 위한 사역은 문화와 언어의 경계를 뛰어 넘는 일이거나 국내에서 자국어로 사역한다고 해도 이미 특수사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드시 개 교회마다 이주자를 위한 전문인 사역자를 양육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시골의 결혼 이주자 사역을 위해서 모든 시골 교회가 전문인 사역자를 둘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 따라서 "전문인 사역자의 양육은 교회 공동체와 노회 또는 지방회 그리고 교단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과 교육이 절실하다."[91] 동시에 전문인의 사역도 개 교회 단위를 뛰어 넘어 지역단위의 교회들을 위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미 위에서 목회의 모델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것으로 이주자의 국가별로 현지인 목회자들을 두고 사역하는 것도 효과적인데 이러한 사역도 개 교회가 모든 비용을 담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노회 단위에서나 혹은 시찰회 단위에서 협력하되 개 교회 단위를 넘어서서 해외 선교의 차원에서 사역하게 할 수 있다.

(3) 방송매체를 이용하는 협력

이주민들은 국적뿐만 아니라 이주의 동기도 다양하다. 이들이 자국의 언어로 자국의 소식은 물론 정보제공, 상담과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방송매체를 활용한다면 우선적으로 상당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기독교 방송이나 극동방송이 시간대를 정해 놓고 "힌디어, 우르드어, 태국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등 다국적 언어로 전파를 띄우는 경우 정규 프로그램을 개발 할 수 있다."[92] 방송국이 이 일을 시행하는 데는 적지 않는 경제적인 필요가

91) 이재혁, op.cit., 283.
92) Ibid, 291.

요구된다. 따라서 전국교회가 협력하여 방송매체를 더욱 활용하는 일이 필요하다.

(4) 이주민 신앙훈련을 위한 교재 개발

이주민들에게 단회적인 복음전도의 사역은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들이 복음으로 거듭나고 계속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숙해 가는 사역을 펼쳐야 한다. 이것은 제자가 되는 본인을 위해서도, 제자 되어 국내에 머무는 동안 또 다른 이주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후일에 본국으로 귀국했을 때 자국민을 위한 사역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제자 삼는 훈련과 교육은 지속적이어야 하며 또한 훈련을 위한 자료들이 있어야 하는데 "교회가 연합하여 제자 훈련과 훈련교제의 개발, 보급이 되어야 한다."[93] 특별히 이것이 필요함은 문화와 종교적인 배경이 다른 타국인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개 교회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일은 각 교단과 교회 공동체들이 상당한 연구를 통하여 이루어져 할 것이다. 이미 100여년 이상의 경험을 축적한 서구교회들의 자료들을 활용하는 일도 도움이 될 것이다.

(5) 이주자의 언어 훈련과 이주자 자녀들을 위한 교육기관 운영

이주자들이 당면하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는 언어의 문제이다. 그들을 위한 언어훈련의 초보적인 과정은 개 교회가 할 있으나 높은 수준의 언어 훈련은 반드시 모든 교회가 개 교회적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또한 모든 교회가 개 교회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교회들이 연합하여 훈련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93) Ibid, 288.

수 있다. 그래서 일정한 지역 단위로 교회가 연합하여 한글학교를 개설하는 일이 필요하다. 나아가서 외국인을 위한 문화학교, 도서관 그리고 문화공간을 마련하는 일도 필요하다.

> 외국인 근로자들이 만남과 휴식의 공간으로 돈과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드나드는 공간을 제공함으로 독서나 영화감상,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게 한다....도서관은 각국의 자국어로 된 서적을 수백 권씩 갖추어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독서 공간 및 독서 대여점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94]

이러한 일들은 분명히 개 교회가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전국교회 혹은 교단차원에서 이루어가야 할 일이다. 여러 교회들 혹은 교단적인 차원에서 실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역들은 이주자 자녀들을 위한 기독교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 기독교 국제학교의 설립과 현재 한국학생 중심인 기독교 미션스쿨에 이주자 자녀들을 위한 교육커리큘럼을 도입하는 일이다.[95]

(6) 이주민이 당하는 인권문제와 부당한 취급에 대한 상담소 운영

이주민들의 삶에 있는 어려움의 요소들로 인권문제와 부당한 취급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복음전도는 단순한 복음을 설명하는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의에 대한 관심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96] 따라서 이주민 선교를 위한 교회가

---

94) 이만열, op.cit., 85.
95) 박찬식, op.cit., 37.
96) Harvie M. Conn, Evangelism : Doing Justice and Preaching Grace(Rrand Rapids :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2), 41-56. 콘은 복음전도와 정의문제를 다루면서 복음전도에는

이주민이 당하는 부당한 취급에 대해서는 침묵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주민의 인권문제와 부당한 취급을 개선하는 일들 역시 개 교회나 한 선교단체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 이유는 인권문제와 부당한 취급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와 국가적인 차원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국 대처하는 방안에도 전국교회 혹은 교단 차원의 연합으로 추진할 때 더욱 효과적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 교회가 이주민의 다양한 요구들을 수행하기 어려운 요소들은 선교단체 간에 협력이 필요한 사역으로서는 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나, 인권 문제 등은 전문성을 가진 선교단체들이 협력하면서 도와주어야 할 사안이다.97) 동시에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성도들로서 법조인들이 함께 협력하여 개선해 나가는 일도 필요하다.

2. 개 교회적인 차원에서의 방안

개 교회적인 차원에서의 이주민 선교사역의 방안들은 참으로 다양할 수 있다. 개 교회적인 사역이 반드시 개 교회적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한정된 것도 아니다. 이미 위에서 교회들 혹은 선교단체들이 협력해서 해야 할 성격의 일들에도 개 교회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복된 내용일지라도 개 교회적으로 더욱 단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역들을 열거해 본다.

정의에 관한 관심이 수반되어야 할 것을 밝히고 있다.

97) 금대현, “호산나 교회 이주자 사역”, 박찬식, 정노화 편, 21C 신유목민 시대와 이주자 선교(서울 : (사)기독교산업사회연구소, 2008), 364.

(1) 이주민을 위한 전도 집회 및 예배

전도 집회 와 예배를 통한 사역은 가장 직접적으로 복음에 직면시키는 사역이다. 이미 이주자들을 위한 예배의 모임을 가지는 교회들이 있다. 특별히 예배 모임에서 필요한 것은 참여적인 예배로서 이주자들이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일이 필요하며, 또한 활기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의 양식에 다소 변화를 줄 수 있어야 하며, 설교의 내용도 논리적이고 추론적인 형식으로 나아가기 보다는 그들의 현실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필요하며, 강요적인 분위기의 설교보다는 신앙고백적인 분위기의 설교가 필요하다.[98] 이주자들은 원래 그들의 전통적인 종교들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기에 다른 종교에 대하여 지나치게 공격적인 형태의 메시지보다는 기독교 진리를 더욱 쉽고도 명료하게 나타내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별히 한 교회가 여러 언어권 예배모임을 다 진행할 수 없는 형편이기에 지역의 교회가 각각 다른 언어권을 나누어 시행하는 일도 서로 도움이 될 것이다.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주 1회 정도의 성경공부를 위한 시간도 마련한다면 더욱 신앙의 성숙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2) 문서선교 사역

언어문제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주민들을 위해서는 국가별 다양한 언어로 제작된 문서를 통한 사역도 필요하다. 여기에는 단순한 전도지뿐만 아니라 신앙서적들도 준비한다면 더욱 효과가 있을 것이다.[99] 그 이유는 동남아 여러 지역에서 들어온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자국어로 된 서적을 구입하는

98) 인명진, op.cit., 152.
99) 이병수, op.cit., 105.

일은 쉽지 않는데 자국어로 된 신앙서적들 만날 수 있다면 상당한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 전도지나 신앙서적은 많은 분량보다는 간단하면서도 명료한 내용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신앙서적을 제공하는 방법은 직접 여러 나라로부터 구입하거나 혹은 우리나라의 자료를 번역하여 출판할 수 있다.

(3) 의료지원 사역

이주자들 가운데는 불법체류로 인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100] 또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문제, 그리고 병원에 갈 시간을 쉽게 마련할 수 없는 상황들의 제약을 받고 있다.[101] 이러한 이주자들을 교회가 직접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그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일들이다. 만일 규모가 있는 교회라고 하면 진료소를 개설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으면 교회에 속한 신자들 가운데 의료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소개하거나 수송을 도와주거나 필요시에는 치료비를 도와주는 사역들을 수행하는 것이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일은 다른 어떤 일보다 긴급함이 요구되며, 또한 당장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일이기에 가장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역이 아닐 수 없다.

(4) 한국어 교실 및 장학사역

이미 교회가 연합하여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방안들 가운데서 다루어진

100) 이만열, op.cit., 84.
101) 정노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만난 하나님”, 220.

내용이지만 개 교회가 소규모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역이다. 특별히 현재 이주노동자들은 물론 농촌지역으로 결혼하여 오는 결혼 이주여성들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이 언어 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당하는 고충이 많은 것으로 교회가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여 언어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여 주는 일이다. 이러한 사역은 시골 교회의 목회자가 단순하게라도 시작할 수 있으며 도시 교회는 교회가 가진 인력 자원으로 더욱 쉽게 할 수 있는 사역이다. 특별히 결혼 이주여성의 경우는 평생 한국에서 살아야 하고, 자녀들을 교육해야 하는 입장에 있기에 반드시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는 필요성을 가진 사람들로서 응하게 될 것이다. 이주 가정의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유학생들 가운데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 이들을 위한 장학사역도 개 교회의 형편에 맞추어 시행할 수 있는 사역이다.

(5) 상담 사역

이주민들의 삶에는 전체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이미 위에서 고찰하였다. 그들의 삶에 많은 애환이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상담의 필요성이 높은 것이다. 상담의 내용도 신앙적인 문제, 인권과 관련한 문제로서 임금, 퇴직금, 산재, 의료, 폭행, 출입국과 관련 여러 일들, 직장을 다시 찾아야 하는 문제들, 가족관계에서 파생되는 일들과 자녀교육 등의 일들로서 참으로 다양 할 수 있다. 이러한 상담의 내용들 중에는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모든 개 교회가 다 수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따라서 개 교회가 해결 할 수 있는 일은 개 교회가 진행하고 더욱 전문성을 요하는 일은 이미 위에서 전국교회나 교단 적인 차원에서 혹은 전문선교단체 등을 소개하거나 협조를 위탁하는 일들을 수행할 수 있다.

(6) 이 · 미용의 혜택을 주는 사역

이주민들도 정규적으로 이 · 미용을 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이나 시골 지역의 결혼으로 이주해 온 경우에 지역의 이 · 미용소를 찾는 일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국의 이 · 미용소를 이용하는 만큼 쉽지 않는 마음이다. 더욱이 경제적인 부담도 쉽지 않을 수 있다. 교회가 이주민들을 위하여 주간 중 어느 하루 혹은 시간대를 정하여 봉사하되 성도들 가운데 이 · 미용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봉사하게 하거나 만일에 종사자가 없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배워서 담당하게 할 수 있다.

(7) 한국음식 만드는 방법 가르치기

이주민들이 국내에서 한 동안 지내거나 영구적으로 지내게 되는 경우에 반드시 자국 음식을 먹기란 쉽지 않다. 음식의 자료가 다를 분만 아니라 조리하는 기구들도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시 거주자도 한국음식을 조리해 먹어야 하며, 결혼 이주자로 영구 거주자는 더욱 더 그러하다. 결혼 이주자의 경우에는 가족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마 언어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한국음식을 만들어 먹는 일일 것이다. 개 교회가 주변의 이주민들을 초청하여 정규적으로 한국음식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며 만든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교제하는 일을 한다면 교회와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고급스러운 음식이 아닌 조리하기가 쉽고 간단하면서 평범한 음식을 위주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8) 문화 공간 제공

해외에 파송되는 선교사들이 선교현지에서 초기 한동안 겪어야 하는 고충은 문화충격(cultural shocking)이다. 타문화 지역에서 선교사역을 수행해야 하는 선교사들이 예외 없이 경험해야 하는 과정이다. 마찬가지로 이주민들 역시 문화차이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의 과정은 반드시 있는데 사소한 풍습의 차이에서부터 문화와 종교생활, 그리고 언어의 표현 등에 다양하게 작용하는 내용들이다. 따라서 이주민들이 정착해 나가는 데는 문화적인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개 교회가 모두 문화공간을 마련할 수 있지 않기에 이미 위에서 교회들이 연합하여 할 수 있는 요소들에 포함시켜 놓았다. 여기서는 개 교회가 작은 규모로라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 문화교실을 운영하여 우리의 문화를 익혀 나가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하는 것이다. 특별히 결혼으로 이주해 오는 여성들에게는 가족들과의 관계는 물론 친지들과의 관계에 대한 호칭과 예절들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겨나는 것을 볼 때 교회가 문화공간을 마련하여 우리의 문화를 익혀나가도록 돕는 것은 상당한 도움이 된다. 이러한 문화 공간을 잘 활용하면 한국교인들이 이주민들의 문화를 역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으며, 더욱이 국적이 다른 이주민 서로 간에도 문화소개와 교제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익이 있다.

(9) 스포츠 및 여러 행사 제공

국내의 외국인 선교를 위한 단체들 가운데는 이미 외국인들을 위한 스포츠 및 음악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사들은 외국인들을 위로하는 기회를 마련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해 주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사는 한 지역의 외국인을 전체적으로 이끌어 내는 기회를 마련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교회가 주최가 되어 이주민들을 위한 스포츠나 음악회 등의 행사를 마련한다면 상당한 호응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행사들은 일상의 무료함이나 힘겨운 삶에 지친 그들에게 일상적인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10) 역 파송의 사역

교회가 이주민들을 위한 선교사역을 펼쳐온 결과로서 추진해 나가야 할 일들 중에 중요한 사역은 역 파송의 일이다. 이 사역은 두 가지 측면에서 가능한 것으로 하나는 본국으로 귀국하는 이주민 신자를 역 파송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주자 본국의 연고지에 교회가 설립되도록 지원하는 일이다. 현재의 "선교는 찾아가는 선교에서 찾아온 사람들을 통한 선교로 바뀌고 있다. 이른 바 땅 끝에서 온 사람들을 통한 선교이다."[102] 최근에 위디 국제선교회 산하 세계이주근로자선교 연구소에서 "2008세계 이주근로자 선교 지도"를 만들어 출판한바 있다. 그 지도의 정보에 의하면,

>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주 근로자들은 2008년 현재 1억2천만 명에 달하며, 이들 대부분은 10/40창에 속한 나라 출신들이었다. 이들은 아시아의 한국, 일본, 홍콩, 싱가폴, 대만,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유럽 전 지역, 북미의 캐나다와 미국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 등의 21개국에 분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역 파송 근로자 출신 선교사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복음화 될 수 있는 대상들이라

102) 유해근, "세계화와 다문화 시대 그리고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박찬식・정노화 편집, 21C 신유목민 시대와 이주자 선교(서울 : (사)기독교산업사회연구소, 2008), 53.

할 수 있을 것이다.[103)]

역 파송의 사역을 위한 인적 자원들을 확보하여 그리스도의 제자화 한다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는 선교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동시에 저비용의 효과적인 선교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이주민들을 위한 사역들이 이러한 과정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관심들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역 파송과 관련하여 이주자들 중에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그곳 현지교회의 목회자나 교회 공동체에 연결시켜 주어서 본국에서도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 갈 뿐만 아니라 현지 교회에 좋은 사역자로 동역하도록 세심한 일들까지도 배려해야 할 것이다.

Ⅶ. 결론

이제 한국교회 앞에는 이주민을 위한 선교의 장이 활짝 열렸다. 공식적으로 이주하여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1백만을 훨씬 넘어섰다. 합법적인 아닌 방법으로 이주하여 있는 사람들을 합한다고 하면 그 숫자가 더 늘어난다. 이주의 종류도 다양하며 도시뿐만 아니라 시골에도 거의 전국적인 분포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그들을 위한 선교를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지난 날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사역에만 치중해 왔지만 이제는 스스로 들어온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균형 있게 수행하는 일이 필요하다. 한국교회가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구심적이며 원심적인 양방향에서 선교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게 조성되었다.

---

103) 문창선, "비정주 외국인 근로자를 통한 역 파송", 박찬식・정노화 편집, 21C 신유목민 시대와 이주자 선교(서울 : (사)기독교산업사회연구소, 2008), 344.

또한 한국교회가 선교를 복음전도의 차원에서만 이해하던 상황에서 포괄적 혹은 통전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나아가서 선교를 해외에 나가서만 행하는 사역으로 이해하던 것을 해외만으로 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장도 마련된 것이다. 한국교회가 해외선교를 수행하면서 경험했던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해결하면서 사역하게 되는 장점을 도입할 뿐만 아니라 고비용의 선교를 저비용으로 돌릴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현재 해외선교에 대한 열기가 다소 주춤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교회의 성장이 주춤한 현상과 함께 일어나고 있다.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과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해외선교 역시 계속하여 상승하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시점에 국내 이주자들의 선교는 성장의 정체 현상에 놓인 한국교회가 다시 성장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이주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교회로 나오게 한다면 선교는 물론 다시 성장세를 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시골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나가면서 적지 않은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때에 결혼 이주자로 온 여성들에게 복음전도와 섬김의 사역으로 크리스천이 되게 한다면 한국의 시골교회가 다시 지속하는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눈앞에 전개된 현실을 책임지고 이주자 선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주자 선교에 대한 전략들은 전국교회와 교단 차원에서 그리고 개 교회의 차원에서 다양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 함께 협력이 필요한 부분들은 최대한 협력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새롭게 주시는 과제임을 깨닫고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참고도서

강명규, “외국인 근로자 선교사역”, 선계선교의 비전과 협력, 서울 : 도서출판횃불, 1996.

강승삼, 21세기 선교 길라잡이, 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98.

강승삼, “한국교회 선교 연합 운동의 현황과 방향”, 선교한국 KMQ, 2002년 여름호.

경기개발연구원, 외국인근로자 정주실태 및 정책수요조사, 수원 : 경기개발연구원, 2006.

금대현, “호산나 교회 이주자 사역”, 박찬식, 정노화 편, 21C 신유목민 시대와 이주자 선교, 서울 : (사)기독교산업사회연구소, 2008.

김승연, 21세게 한국교회 어디로 가야 하나?, 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97.

김영동, “외국인 노동자 선교에 대한 신학적 고찰(상)”, 외국인 근로자 선교, 서울 :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전도부 외국인 근로자 선교 후원회, 1997.

김의원, “구속사에서 본 외국이주민”, 박찬식 · 정노화 편, 21C 신유목민 시대와 이주자 선교, 서울:(사)기독교산업사회연구소, 2008).

김희수, “국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한국교회의 선교전략 연구”, 선교학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선교대학원, 2000.

문창선, “비정주 외국인 근로자를 통한 역 파송”, 박찬식 · 정노화 편집, 21C 신유목민 시대와 이주자 선교, 서울 : (사)기독교산업사회연구소, 2008.

박성범, “다문화 가정의 신앙 정착을 위한 교회교육의 접근방법 고찰”. 개혁논총, 제15권, 2010년 9월.

박찬식, “21C 선교환경 변화와 이주자 선교의 관점과 전략”, 박찬식 · 정노화 편집, 21C 신유목민 시대와 이주자 선교, 서울 : (사)기독교산업사회연구소, 2008.

방휘탁 편,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백서, 서울 : 다산글방, 2001.
송병준 외,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미래, 서울 : 미래인력연구센타, 1997.
유해근, “세계화와 다문화 시대 그리고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박찬식 · 정노화 편집, 21C 신유목민 시대와 이주자 선교, 서울 : (사)기독교산업사회연구소, 2008.
윤인진, 송영호, 김상돈, 송주영, 한국인의 이주노동자와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 파주 : 한국학술정보(주), 2010.
이만열, “한국교회의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선교적 과제”, 특수선교와 교회성장, 서울 : 대한예수교장로회 특수선교위원회, 1997.
이병수, “이주노동자 선교방안”, 고신선교, 제3호, 부산 : 고신대학교선교연구소, 2004.
이복수, “선교에 대한 이해의 재고”, 고신신학, 부산 : 고신신학 연구회, 1995, 창간호.
이복수, 차재국, 신지영, 선교와 언어, 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2002.
이순홍, 지교회의 자국 내 외국인 선교전략, 파주 : 한국학술정보(주), 2009.
이승구, “이주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 박찬식 · 정노화 편, 21C 신유목민 시대와 이주자 선교, 서울 : (사)기독교산업사회연구소, 2008.
이재혁, “국내 이주노동자 선교의 필요성과 실행 가능한 선교전략”, 하나님 나라 이주노동자 선교(서울 : (사)기독교산업사회연구소, 2004),
이종록, “너희도 전에는 게르였다, 외국인 노동자 선교를 위한 구약성서적 이해”, 외국인 노동자 선교와 신학, 서울 : 한들출판사, 2000.
이지연, “다문화사회 속에서의 선교”,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이태웅, 한국교회의 해외선교, 서울 : 죠이선교회출판부, 1997.
인명진, 이주노동자에 대한 교회의 역할“, 교회성장, 교회성장연구소, 2003년 7월호.

임희모, “이주노동자에 대한 선교신학적 접근”, 외국인 노동자 선교와 신학, 서울 : 한들출판사, 2000.

임희모, “지구화와 다문화 상황에서 한국교회의 선교적 과제”, 문화와 사회변동, 1910년 에딘베러 세계선교사대회 100주년 기념 2010 한국대회 논문집, 제8분과, 서울 : 한국연합선교회, 2011.

장성진, “다문화 사회 속에서 이주민의 사회적 인식과 이에 관한 한국교회의 선교 방안 모색”, 문화와 사회변동, 1910년 에딘베러 선교사대회 100주년 2010 한국대회 논문집 8, 서울 : 한국연합선교회, 2011.

장훈태, “다문화 사회와 교회의 선교적 대응”, 복음과 선교, 제9집, 한국복음주의 선교신학회, 서울 : 한들출판사, 2008.

전호진, 선교학, 서울 : 개혁주의신행협회, 1994.

정귀순, “한국 이주노동자의 인권 실태”, 이주노동자 선교방안(2004년 9월 14일 고신대학교 선교연구소 정기 세미나 강의안).

정기선,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문화적 적응”, 이혜경, 정선기, 강수돌, 설동훈, 석현호, 한국사회와 외국인 노동자, 서울 : 미래인력연구센타, 1998.

정노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만난 하나님”, 하나님 나라와 이주노동자 선교, 서울 : (사)기독교산업사회연구소,2004.

정노화, “한국사회의 다문화 사회진행과 선교”, 박찬식 · 이우성 편, 한국교회여, 미래사회를 대비하라, 서울:(사)기독교산업사회연구소, 2006.

정미경, “다문화사회를 향한 한국기독교의 이주민선교”, 복음과 선교, 제16집,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 고양 : 올리브나무, 2011.

조귀삼, “재한 디아스포라 거류민의 신음에 대한 교회의 선교적 응답”, 복음과 선교, 제9권, 2008년 6월.

통계청 자료(통계청자료로서는 가장 최근의 자료로서 2012년 6월 27일에 인용)

Bavinck, J. H., An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Missions, Phillipburg :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60.

Blauw, Johannes, The Missionary Nature of the Church, New York : McGraw-Hill, 1962.

Bosch, David J., Witness to the World, Atlanta : John Knox Press, 1980.

Brighr, John, The History of Israel, London : SCM Press, 1959.

Conn, Harvie M., Evangelism : Doing Justice and Preaching Grace, Rrand Rapids :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2.

Douglas, J. D., ed, The Lausanne Covenant,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Minnesota : World Wide Publications, 1975.

Freytag, Walter, The Gospel and the Religions, IMC Research Pamphlet No.5, London : SCM Press, 1957.

Glasser, A. F., and McGavran, D. A., Contemporary Theologies of Mission,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83.

Guthrie, D., Motyer, J. A., Stibbs, A. M., Wiseman, D. J., ed., New Bible Commentary, Leicester : IVP, 1988, Third Edition.

Hedlund, Roger E., Mission to Man in the Bible, 송용조 역, 성경적 선교신학, 서울 : 서울성경학교출판부, 1990.

Kane, J. Herbert, The Christian World Mission : Today and Tomorrow,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81.

Peters, George W., A Biblical Theology of Missions, Chicago : Moody Press, 1972.

De Ridder, Richard R., Discipling the Nations,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75.

Rowley, H. H., The Biblical Doctrine of Election, London : Lutterworth Press, 1952.

Stott, John R. W., Christian Mission in the Modern World, London : Falcon Books, 1975.

Verkuyl, Johannes, Contemporary Missiology, Grand Rapids : Eerdmans, 1987.
Winter, Ralph D. and Hawthorne, Steven C., ed, Mission Perspectives, 정옥배 역, 미션 퍼스펙티브, 서울 : 예수전도단, 2000.
http/blog.naver.com/rozg/140122580575.